

# 물량·수주 '뚝'... 광주·전남 건설업체 '흔들'

## 광주 256개 업체 중 132개 업체 1년간 1건도 수주 못해 중흥건설 수사 여파 공사 현장마저 줄어들어 어려움 가중

해마다 계속되는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여기에 최근 중흥건설의 검찰 수사 여파로 공사현장마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업체의 경영 타격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물량 감소와 수주 축소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물량 계획에 맞춰 협력업체와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과 장비

인력공급계획을 마련했지만 지역 건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이들 업체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관내 공공공사 발주는 2113억원 수준으로 2013년 대비 43.8%나 감소했다. 공사 건수 또한 32.5%가 줄어 광주지역 256개 업체 중 52%인 132개 업체가 1년 동안 단 한 건의 공공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전남지역 건설업체도 지난해 대부분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수주에 집중했다. 수주 건수 기준으로 7138건 중 7004건 98.1%가 100억원 미만

공사였다. 도내 전체 발주공사 중 지역업체 수주액비율도 3년 평균 46.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게 광주시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 수사와 정원중 중흥건설 사장의 구속으로 중흥건설의 물량공급계획이 미뤄지면서 지역 중소기업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중흥건설의 상반기 공급물량계획은 1만2000가구에 달했지만 공급계획의 10%도 안 되는 1000가구만 풀리면서 협력업체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 순천 신대지구의 경우 상반기 계획했던

아파트 분양 2곳이 모두 연기되면서 전남 지역 건설업체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전남지역 레미콘 조합 등 지역 상공인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중흥건설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실정이다.

전남지역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상반기 내내 아무 일도 못하고 두 손 놓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며 "하반기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위축된 사회분위기가 지역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수주확대와 물량공급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 백화점, 소비 불씨 되살리기

### '짧고 굵은' 여름세일 나선다

내수침체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고전하는 지역 백화점 업계가 다음 주 중반부터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짧고 굵은' 여름세일에 나선다.

21일 광주신세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6일부터 19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최대 2주가 가까이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할인 폭과 품목 등을 늘려 고객의 이목을 끌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올 2015년 정기 여름세일을 17일동안만 펼친다. 지난 2012년, 2013년의 약 한 달간 여름 세일을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15년도 여름세일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4일간 진행한다. 휴가철이 다가온 만큼 세일 기간 썸소나이트·엘르·비아모노·캠블라린인테리어 등 집합 브랜드와여행용 가방(캐리어)을 같은 상품군의 약 절반 가격에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1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금호고속에 탑승하는 한 버스 이용객이 차내에 설치된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메르스 방역을 위해 지난주 모든 시외·고속버스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했다. <금호고속 제공>

## 주택용 전기요금 7월~9월 한시적 인하

### 657만가구 월 8368원 경감 산업용 8월부터 1년간 할인

올 여름부터 주택용·산업용의 전기요금 부담이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택용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201~300kWh)에도 3구간(301~400kWh)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657만 가구에 1300여원의 전기

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월 366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가구의 경우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평일에서 휴일로 유도하는 정책과 관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바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겨울철의 경우 피크 타임 오전 11시~오후 1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며, 나머지 계절에는 낮 12시~오후 1시, 오후 3시~4시 등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총 절감비용은 총 3540억원, 업체당 연 평균 437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국전력-포스코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지난 19일 오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조환익(오른쪽) 한전 사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전 제공>

## 한전-포스코 손잡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

### 포괄적 사업협력 MOU

한국전력과 포스코가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 신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전략적협력을 맺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내용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강점을 살려 에너지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는 한편,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입찰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전문가가 참여 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을 통해 우선 중동·동남아·중남미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자발전사업(IPP)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기술·중저온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합성천연가스(SNG)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조 사장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해외사업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보유한 양사의 협력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동룡기자exian@

## "PE 강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 유지"

### 강관 제조 중소기업들 촉구

"마지막 남은 수도관마저 대기업에 빼앗기면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폴리ethylene(PE) 피복강관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이 강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재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 가스관, 2015년 송유관이 대상품목에서 빠지면서 대기업이 시장을 차지한 것과 관련, 올 연말 지정기간이 끝나는 피복강관마저 재지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출도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해 대상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품목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청에 추천한 뒤 중소기업청이 연말에 최종 품목을 발표한다. 지난 2006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중기간 경쟁 제품들은 207개이고, 공사용 자체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123개다.

PE 강관 시장의 경우 용도별로 가스관, 송유관, 수도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해 시장 규모는 3000억원(가스관 1718억, 송유관 450억, 수도관1150억)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석유공사에서 사용하는 PE 강관 물량은 지정이 풀리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모두 차지했다. 이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쟁할 수 있는 PE 강관 시장은 오직 1100억원대의 수도관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자 중소기업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재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밀려 시장을 통째로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이다.

강관을 제조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피복강관 같은 중소기업의 품목은 중소기업청 판로 지원법의 취지를 살려 '중기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재지정이 안되면 대기업의 쏠림현상이나, 외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요일, 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b>사범, 행정고시 합격자</b>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크리마, 미스전복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